

기지시줄다리기 세계화 마케팅 전략수립

# 의 정 토 론 회

---

- 일 시: 2017. 10. 30.(월) 14:00
- 장 소: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공연장
- 주 최: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7. 10. 30.(월) 14:00 ~ 16:00
- 장 소: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공연장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주 제: 기지시줄다리기 세계화 마케팅 전략수립

## 진행 흐름

| 시 간 |    |    | 내 용 | 비 고 |
|-----|----|----|-----|-----|
| 부터  | 까지 | 소요 |     |     |

### < 개 회 식 >

|       |       |    |                 |           |
|-------|-------|----|-----------------|-----------|
| 14:00 | 14:05 | 5' | 개회 및 국민의례       | 사회:정책지원팀장 |
| 14:05 | 14:10 | 5' | 내빈소개, 개회사, 축사 등 | 김명선 의원    |

### < 토 론 회 >

※좌장: 김명선 의원

|       |       |     |  |                      |
|-------|-------|-----|--|----------------------|
| 14:10 | 14:30 | 20' | <b>주 제 발 표</b><br>▶ 정병웅 / 순천향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br>☞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의 발전 방향  | (PPT 발표)             |
| 14:30 | 15:30 | 60' | <b>지 정 토 론</b><br>▶ 안본환 /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장<br>▶ 조성춘 /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장<br>▶ 정연창 / 충청남도 문화유산과장<br>▶ 설기호 / 충청남도 관광마케팅과장<br>▶ 김경태 /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br>▶ 박종희 / 당진시 문화관광과장 | 토론자 전체<br>(각 10분 내외) |
| 15:30 | 15:45 | 15' | <b>자 유 토 론</b>   | 발제자 및 토론자            |
| 15:45 | 15:55 | 10' | <b>청중토론(질의 답변)</b>   | 참여자 전체               |
| 15:55 | 16:00 | 5'  | <b>정 리 및 폐 회</b>   | 좌장                   |



# 목 차

## ■ 주제발표

- ☞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의 발전 방향 ..... 3  
정병웅(순천향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 지정토론

- ☞ 기지시줄다리기 마케팅 활성화 방안 ..... 21  
안본환(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장)
- ☞ 기지시줄다리기 활성화 방안 ..... 23  
조성춘(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장)
- ☞ 문화유산으로서 기지시줄다리기 발전 방안 ..... 27  
정연창(충청남도 문화유산과장)
- ☞ 기지시줄다리기 마케팅 활성화 방안 ..... 33  
설기호(충청남도 관광마케팅과장)
- ☞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기지시줄다리기 활성화 방안 .. 37  
김경태(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
- ☞ 기지시줄다리기 관광자원화 방안 ..... 43  
박종희(당진시 문화관광과장)



## 주제발표

### ■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의 발전 방향

정 병 응 (순천향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기지시 줄다리기



##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의 발전 방향

정병웅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한국관광학회 수석부회장



극단적 비일상 추구

## 스페인 토마토 축제



**일상**  
합리주의, 낮

**Daily life**  
이성(규범), 위계

**생산**  
노동, 긴장

**의도적 낭비**  
여가, 이완

**비일상**  
정의주의, 밤



## 축제의 어원과 개념

**Festival** -라틴어 Festivalis(聖日)

**Carnival** -라틴어 Caro valens/ Carne leva

### 축제의 역사

초자연적 사회 : 제례의식  
전통 사회 : 세시풍속  
산업 사회 : 축제, 축전  
현대 사회 : 이벤트

## 축제의 기능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  
사회 통합과 질서

심리학자, 프로이트(Sigmund Freud)  
인간본능 억압의 폐기

축제의 개념

Religious + Cultural

종교적 현상 + 문화적 현상

*Rio Carnival* 축제  
Festival



축제의 의미

힌두교의 종교문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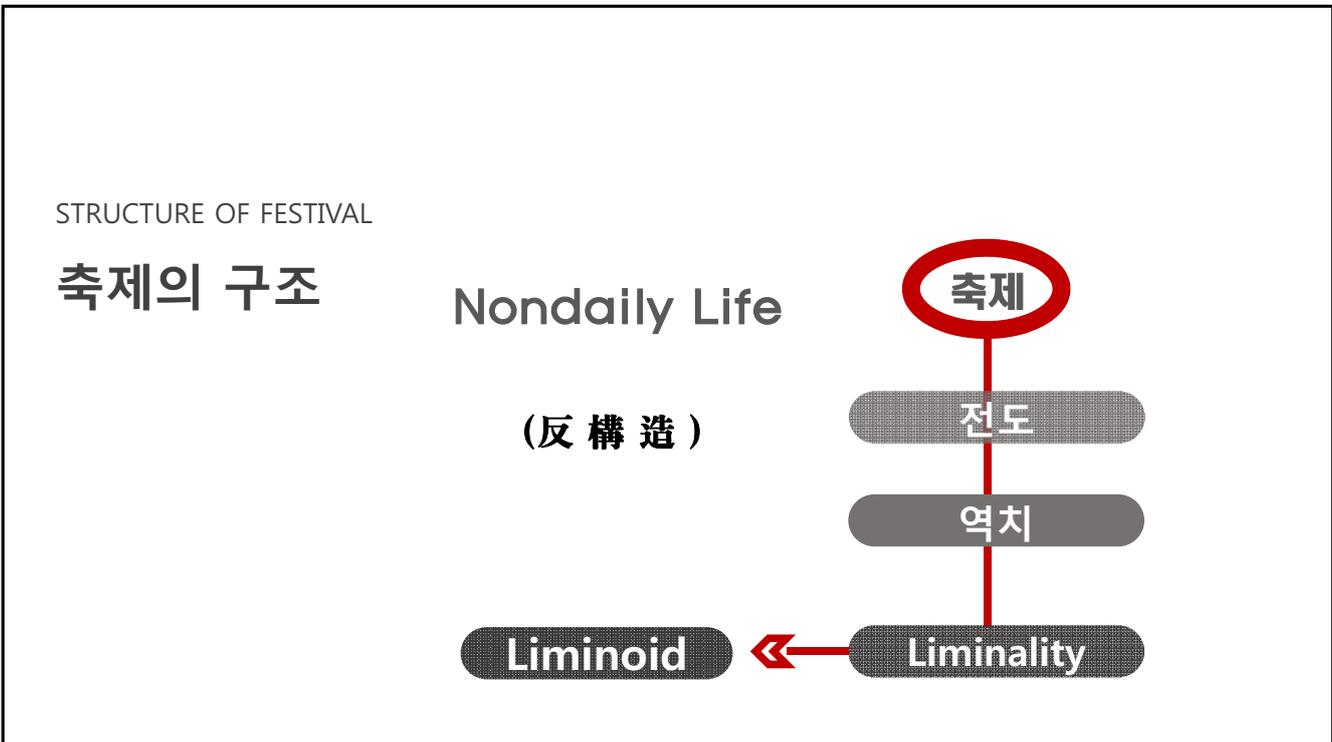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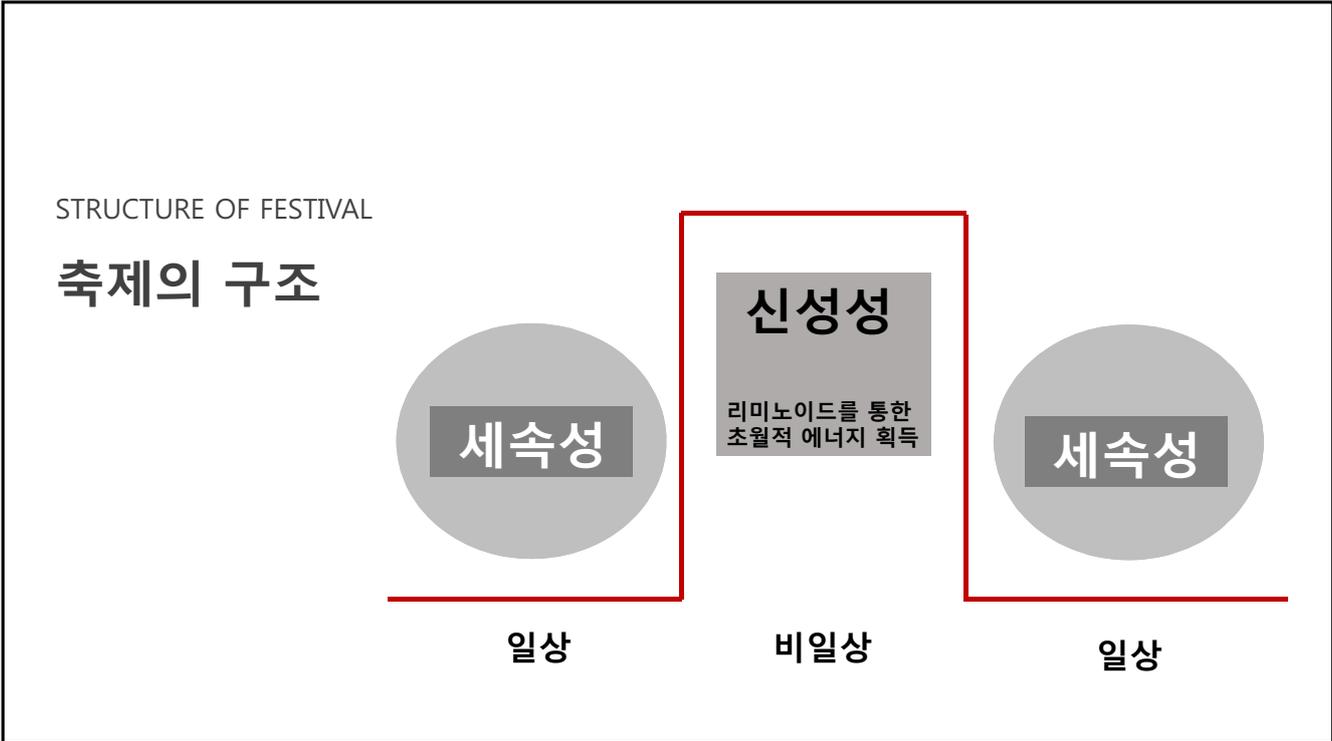


Past 종교적 (祝祭, festival)

산업적 Now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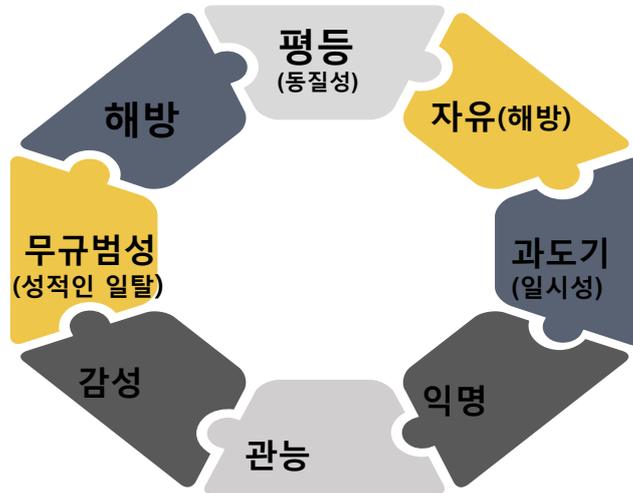


Photo Credit: <http://blog.daum.net/yulgong93/457>



STRUCTUREING COMMUNITAS

## IIMINOID 의 특성



FOR SUCCESSFUL FESTIVAL

## 성공적인 축제

食酒歌舞,  
色雜技

| 비일상적 소재 |                  |
|---------|------------------|
| 먹고      | 음식축제, 먹거리축제      |
| 마시고     | 옥tober페스타, 막걸리축제 |
| 춤추고     | 흥타령, 댄싱페스티벌      |
| 노래하고    | 음악극, 락페스티벌       |
| 관능적이고   | 삼바페스티벌           |
| 색다른 놀이  | 머드축제, 물축제        |
| 경쟁적 스포츠 | 체육대회, 메가이벤트      |
| 다양한 기술  | 예술제, 프린지 축제      |



AMPLIFICATION/ENHANCEMENT

축제의 증폭/강화 요소

술 생화학적 요소

물리적 요소 가면



<http://cafe.daum.net/cccamper/8yV7/1020?q=%BF%C1%C5%E4%B9%F6%C6%E4%BD%BA%C6%AE&re=1>  
<http://blog.naver.com/islandtake/150177203873> <http://blog.daum.net/babobus119/15154605>



*Oktoberfest  
Beers*



*venice carnival*

FOR SUCCESSFUL FESTIVAL

### 성공적인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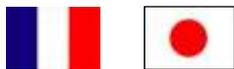
## 축제의 시간/공간



나이트라이프 활성화  
랜드마크, 이스케이프 조성

MORDERN KOREAN FESTIVAL

### 현대 한국의 축제



※ 프랑스, 일본 축제 : 각각 1만여개



- 형식과 규모를 갖춘 축제 2,500개
- 95년 지자체 이후 급성장(관주도)
-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여 많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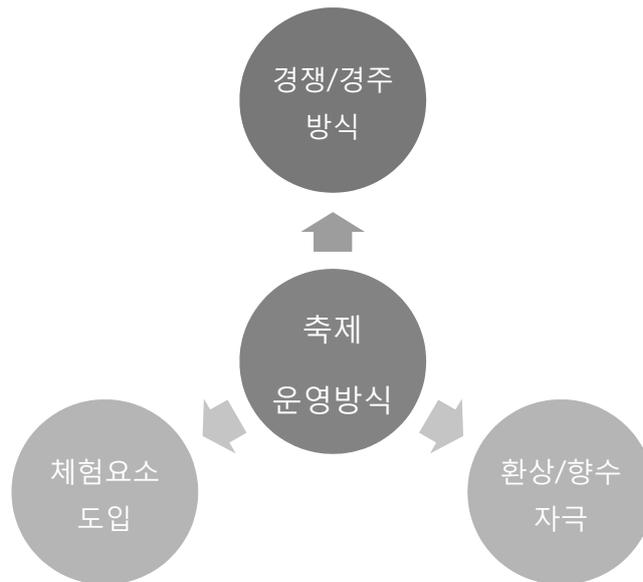
FOR SUCCESSFUL FESTIVAL

### 성공적인 축제 지역 축제의 **중요 요소**

- 지역적(향토성)
- 역사성(문화성)
- 의미 + 재미 = 감동
- 지역주민이 주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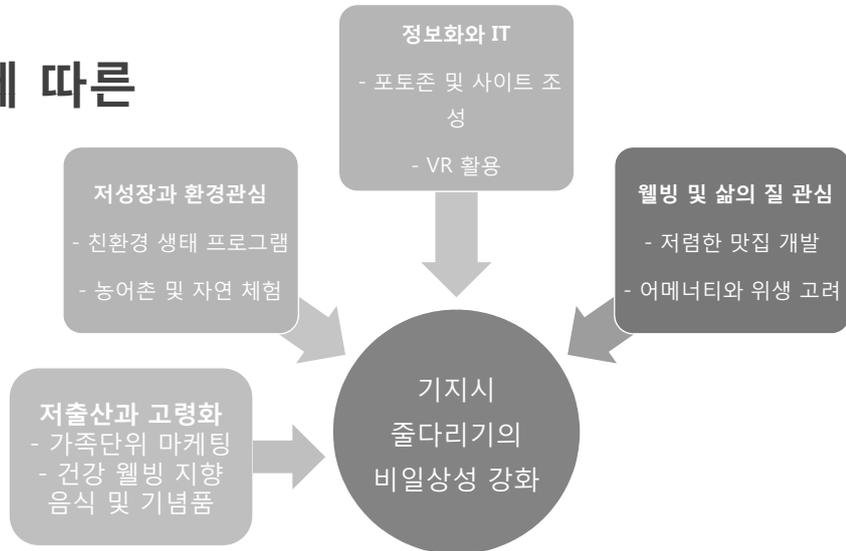
FOR SUCCESSFUL FESTIVAL

### 성공적인 축제



FOR SUCCESSFUL FESTIVAL

## 사회적 트렌드에 따른 마케팅 방안



기지사 줄다리기 축제

## 마케팅 주요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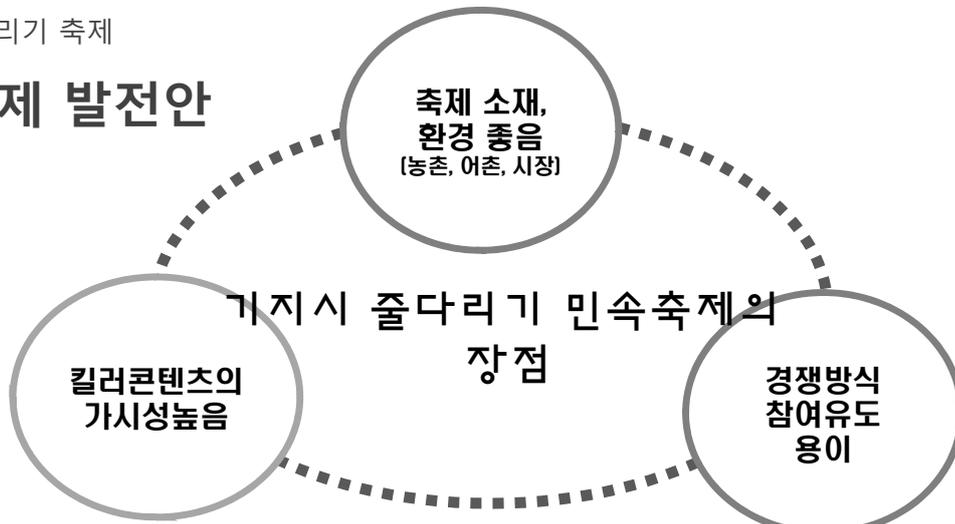


현대 축제의  
마케팅 주요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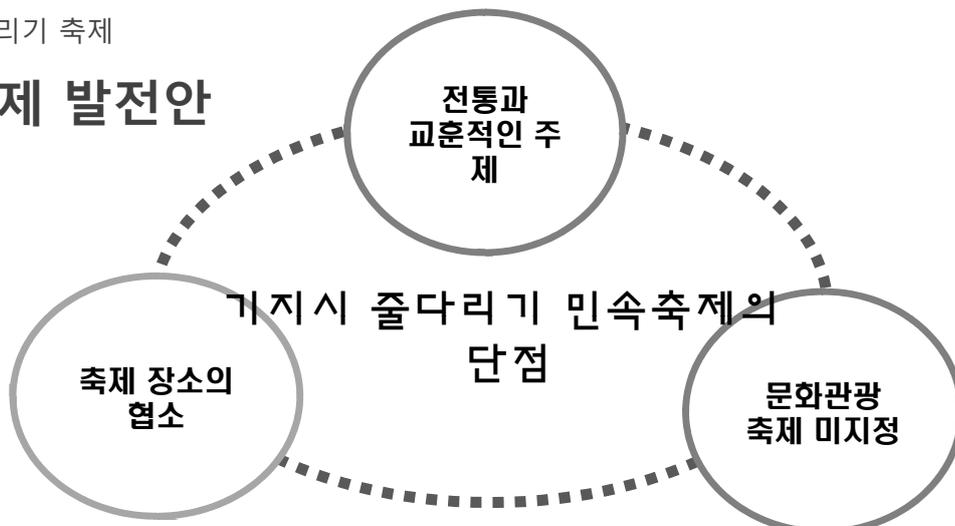
기지사 줄다리기 축제

### 민속축제 발전안



기지사 줄다리기 축제

### 민속축제 발전안



기지사 줄다리기 축제

## 민속축제 발전안

지속적인 주민들의 관심 유도 및 제고

민속축제로서 관련 고증 및 스토리텔링

축제장의 상설화, 랜드마크화, 환경 분위기 조성

경쟁방식과 향수를 주제로 외연 확대 필요

- 농촌 어촌 시장을 중심으로 주제 확대

기지사 줄다리기 축제

## 민속축제 발전안

킬리콘텐츠 강화 - 본행사의 단판승부

당주나누기로 제참가자의 리미노이드를 증폭

줄다리기 주제 하에 매년 변화, 창조(슬로건)

유네스코 등재에 걸맞는 프로그램 개발 노력

가지시 줄다리기 축제

## 민속축제 발전안

메인컨텐츠의 프리 포스트 이벤트 강화

축제현장에서 줄 제작 방식 시연 및 체험

교육적 주제의 패러디화(과감히 19금존의 시도)

한국 최고의 민속축제로 승화(대보름행 곳 행사)

THANKS FOR WATCHING

**감사합니다.**

## 지정토론

- **기지사줄다리기 마케팅 활성화 방안**  
안 본 환 (기지사줄다리기 보존회장)
- **기지사줄다리기 활성화 방안**  
조 성 춘 (기지사줄다리기 축제위원장)
- **문화유산으로서 기지사줄다리기 발전 방안**  
정 연 창 (충청남도 문화유산과장)
- **기지사줄다리기 마케팅 활성화 방안**  
설 기 호 (충청남도 관광마케팅과장)
-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기지사줄다리기 활성화 방안**  
김 경 태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
- **기지사줄다리기 관광자원화 방안**  
박 중 희 (당진시 문화관광과장)



# 기지시줄다리기 마케팅 활성화 방안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장  
안 본 환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 주관 기지시 줄다리기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충청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5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민속놀이로 수많은 어려움에도 곳곳이 전승되어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기지시 줄다리기의 더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을 거 같고 현재의 부족한 점 보완해야할 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지시 줄다리기 보존회는 26명의 전승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평균 나이가 60세로 젊은 전승자 충원이 시급하나 현실적인 문제로 쉽진 않지만 능력 있는 전승자가 맘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진다면 이 문제 또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관광객, 단체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의 찾아오는 관광객을 더욱 증가시키고 유지하려면 학예연구사 박물관 상시 근무와 프로그램 개발 및 타 박물관과의 교류 등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시연장 조정 정비, 국수정 및 줄다리기 역사성 장소 정비와 동선 개발로 잠깐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며 생각하고 느껴볼 수 있는 기지시줄다리기와 당진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관광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이곳 당진은 수도권과 가까운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포토존 개발 등을 첨가한다면 충남의 관문으로 젊은 관광객을 비롯한 수많은 관광객으로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보존회에서 생생문화재사업과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예산 확보가 된다면 주말마다 공개행사 등으로 늘 깨어있는 줄다리기 박물관 시연장이 될 것입니다.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보존전승 전문가로 구성된 보존회가 줄다리기와 제례분야 등 전통부분을 맡고 유능한 축제 전문가가 이끄는 축제위원회는 마케팅과 다양한 이벤트로 축제 전반을 맞아 준비부터 실행까지 나누어 분담한다면 더욱 발전된 축제가 될 것이고 지금이 그렇게 나눌 적당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에서도 문화재팀은 보존회의 자문역을 맡고 관광기획팀은 축제 위원회를 자문해 더욱 효과적이고 큰 축제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축제에 대해서는 훌륭하신 조성춘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점점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지시줄다리기 활성화 방안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장  
조 성 춘

## I.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 운영 현황 및 민속축제

### ○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 조직현황

- 각 부서별 업무분담으로 조직체계 구성
- 총무부, 협력지원부, 시설부, 홍보부, 대회운영부로 편성
- 축제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5개부서, 임원이사 47명으로 구성
- 매월 2째주 화요일 정기이사회 개최
- 임원이사회, 사무국회의 등으로 축제준비 기획

### ○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 매년 4월 2째주 목,금,토,일요일(4일간) 진행
- 1일차: 제례의식 (당제, 용왕제, 시장기원제)
- 2일차: 개막식, 충남도지사기 전국품물대회, 학술행사 등
- 3일차: 전국스포츠줄다리기대회, 유네스코 한마당 등
- 4일차: 읍·면·동 전통줄다리기대회, 줄고사, 줄나가기, 줄결합, 줄다리기
- 지역축제가 아닌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대표적 민속축제로서의 좋은 소재와 전통성을 지니고 있음
- 매년 많은 관광객들의 참여로 당진시 및 충청남도의 홍보와 지역경제 파급효과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 축제시에는 축제전문가에게 평가용역을 의뢰하여 축제의 장점과 단점 또한 방문객 분석, 설문평가,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여 익년 축제에 반영 더욱더 발전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음

## II.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의 잘된 점과 개선점

### ○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의 잘된 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며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인 기지시 줄다리를 축제화하여 그 전통성을 이어가고 잊혀지는 전통민속 문화를 많은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축제
- 현대의 축제적 모습과 결합하여 전통을 보존하고 풍요와 안녕을 상징하는 의례와 함께 다양한 전통놀이 문화가 접목된 우리나라 대표의 지역전통 민속축제임
- 전국을 수상과 수하로 나누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여야만 이루어지는 축제로써 관광객들의 참여도와 응집력이 상당히 높으며 이로 인해 타 축제와 비교할 때 대표프로그램에 대한 매력성이 상당히 높음

### ○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의 개선점

- 매년 반복되는 교통, 주차 문제는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함(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공식 주차대수 22대)
-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지만 사유지를 임시 임대함으로써 매년 고충을 야기함
- 축제장의 협소로 인해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축제의 다양성에 미흡함

## III. 기지시줄다리기의 발전방향

- 전국적인 홍보를 하여 수도권과 충남 일부의 관광객만이 아닌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진입하여 홍보 및 예산 확보

- 당진시, 충청남도 관광과 연계할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축제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항시 조직체계 유지

#### **IV.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활성화 방안**

##### **○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의 육성·의지 표명 강화**

-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는 당진시를 넘어 충청남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지향하는 전통 민속축제임
- 4일간의 축제만이 아닌 정월대보름행사(음력 1월14일)와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줄제작, 특히 큰줄제작을 활성화 하여 관광객들이 직접 줄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 축제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당진시민 참여가 많은 프로그램이 많으나 충청남도 각 시,군이 참여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충청남도 대표 축제로써 방향이 시급함

##### **○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 만족향상 강화**

- 전국의 수많은 축제의 성과 여부는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그 축제의 척도가 되는 만큼, 관광객들에게 최대한의 만족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함
-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는 참여형, 체험형의 대표적 축제로써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임
- 그러나 교통문제, 특히 주차문제는 매년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임
- 축제현장의 시설물 확대와 그늘막, 수유시설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해야함



# 문화유산으로서 기지시줄다리기 발전 방안

충청남도 문화유산과장  
정 연 창

## I.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기지시줄다리기 개요

줄다리기는 풍농을 기원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도작(稻作, 벼농사)문화권에서 널리 행하여져 왔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줄다리를 행함으로써 사회적 결속과 연대감을 도모하고 새로운 농경주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두 팀으로 나누어 줄을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놀이인 줄다리는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공동체의 풍요와 안위를 도모하는 데에 본질이 있었습니다.

줄다리를 통해 마을의 연장자들은 젊은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연행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를 통해 결속과 단결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각지에서 널리 행해지는 민속 줄다리는 두 편으로 갈라 서서 서로 마주보고 줄을 당긴다는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기후나 환경에 따른 각각의 특수성과 독자성, 그리고 창조성이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산줄다리기(국가지정 제26호), 기지시줄다리기(국가지정 제75호), 삼척기줄다리기(강원지정 제2호), 감내계줄당기기(경남지정 제7호), 의령큰줄땡기기(경남지정 제20호), 남해선구줄끗기(경남지정 제26호) 등 국가 지정과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총 6건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도한 다국가간 공동등재 유산이며, 우리나라는 민족 문화의 특성과 정신적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놀이이자 의례인 민속 줄다리기의 문화적 다양성과 공유적 가치에 대해 주목하고 다국가간 공동등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공동등재 종목 후보 대상으로 줄다리를 선정하고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중 참여를 희망한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과 수년간의 협력을 통해 2015년 12월 공동등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우리도 기지시줄다리기 개요〉

- 행사시기 : 매 윤년 양력 4월 초하루(대제), 매년 음력 2월 초하루(소제)
  - 2010년부터 매년행사로 전환 (축제성격 강화에 따라)
- 주요특징 : 무게 40톤, 길이 200m, 참여인원 5천여명, 행사시간 2시간여
- 문화재지정 : 1982. 6. 1.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 지정
  - 보유자 : 구자동('44년생, 줄다리기), 장기천('35년생, 줄제작)

## II. 기지시줄다리기 발전방안

### 1.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가치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존 전승필요

유네스코 등재신청시 제시되었던

- ①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전 세계 문화 다양성을 보여 주고 인류 창의성을 증명하는데 기여,
- ② 해당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보호 조치 구체화,
- ③ 공동체, 단체, 개인의 자유로운 동의에 기반한 광범위한 참여가치의 보존 전승 필요 등

유산의 등재 가치의 보존 전승에 주력하여야 한다.

## 가. 문화다양성과 인류창의성 증명

문화다양성과 인류창의성 증명을 위하여는 기존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콘텐츠 보완 및 교육프로그램 확충과 도작(稻作, 벼농사)문화 및 짚 관련 문화의 보존 및 전파가 필요하다.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창의성 관점은, 기존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기지시줄다리기 보존, 전승, 활용의 범위를 초월하여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국가 문화재 관점으로는 줄다리기 과정(줄 제작 → 당제·용왕제 → 민속놀이 → 진터놀이(줄고사, 결줄당기기) → 줄 나가기 → 줄 연결 → 줄다리기 → 줄 끊어가기) 중심의 보존 및 활용방안 도출이라면, 인류무형문화유산적 관점은 기존 줄다리기과정 보다 훨씬 포괄 개념인 도작(稻作, 벼농사)문화 및 짚 관련 문화의 보존 및 전파이기에

인류무형유산적 시각으로 공동 등재 4개국(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벼농사 문화 비교연구를 통한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창출하여 이를 박물관 전시, 비교 영상물 제작, 4차산업혁명 관련 콘텐츠 제작, 기지시줄마을 조성(가칭) 등에 다양한 소재로 활용 가능성은 물론이고 한국 고유의 줄다리기 문화의 다양성과 인류창의성을 증명하는 킬러 콘텐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나. 해당 유산의 보호조치 구체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기본 원칙인 ① 민족정체성 함양, ②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③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의무이행 등 기지시줄다리기 전형(典型)<sup>1)</sup>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수립 추진과 예산확보 노력 및 전승자의 충실한 전승활동 수행 등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 무형문화재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다. 공동체, 단체, 개인의 광범위한 참여

공동체 등의 참여는 인류무형유산의 핵심가치 중 하나로 특정단체, 특정 보유자, 줄다리기 중심이 아닌 지역주민(시민)이 벼농사 문화, 짚 문화, 줄다리기 문화의 광범위한 참여주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과 국내 5개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성은 물론, 가치의 전파를 위한 학교교육(학생), 직장인, 일반인, 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시행과 줄다리기 문화의 전파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전시회, 시연회, 조사연구, 줄다리기 가치 홍보를 위한 대 내.외적 교류가 필요하다.

## 2. 당진시 중심(지역 중심) 무형유산 보존체계 구축

### 가.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고유성 토대구축

기지사줄다리기 보존회, 지역 리딩그룹 등 현지 주민 중심의 줄다리기 보존 및 활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 나. 보존단체(기지사줄다리기 보존회) 중심 전승환경 변화조성

특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단체 중심이 아닌 당진 시민 전체의 기지사줄다리기 보존회로 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줄다리기행사의 광범위한 홍보를 위해 행사준비 기간이 가장 긴 줄제작 과정에 당진지역을 초월한 많은 사람이 확대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3. 기지사줄다리기 활용기반 구축

#### 가. 당진시 중심 독자적 활용체계 구축

기지사줄다리기의 심화연구, 관련 스토리텔링 조사, 전승지원, 보급과 확산, 기록화, 정보화, 인식제고, 교육 및 향유확대, 문화 콘텐츠화 등 독자적 활용체계 구축과, 특히 종합적 조사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등 활용토대 구축이 필요하다.

#### 나. 무형유산 중심 콘텐츠산업 확대, 4차 산업 접목

기지사줄다리기의 특징에 근거한 지역재생, 문화유산교육, 활용 콘텐츠창작, 국제교류,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도입 등 콘텐츠산업 확대 및 4차 산업과의 접목이 필요하다.

### 4. 기지사줄다리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보존회 및 당진시 행정전담 조직의 확대 개편과, 무형유산법과 연계한 조례, 규칙 등의 정비는 물론, 민·관·학 무형문화유산 거버넌스 구축, 지역 브랜딩 전략 추진 등이 필요하며, 특히 기지사줄다리기 관련 전승 및 활용을 위한 조례 제·개정 검토가 요구된다.

아울러, 줄다리기의 본질인 화합과 단결을 감안 “남북화합 통일 줄다리기”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평불협)과 추진한 업무협약의 지속 유지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도 필요하다.

※ **당진시 관련조례**

1.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지원 조례[시행 2014.2.14.]
2.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 2016.1.1.]

**<제주 해녀문화 : 2016년 인류무형유산 등재관련>**

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918호, 2017.9.27., 일부개정, 시행 2017.9.27.]
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189호, 2014.4.21., 전부개정, 시행 2014.10.22.]
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118호, 2013.12.31., 전부개정, 시행 2013.12.31.]
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70호, 2017.6.2., 제정, 시행 2017.6.2.]
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518호, 2015.12.31., 일부개정, 시행 2015.12.31.]

**<아리랑 : 2012년 인류무형유산 등재관련>**

1.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강원도정선군규칙 제1211호, 2013.3.12., 제정, 시행 2013.3.12.]
2.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567호, 2017.4.17., 일부개정, 시행 2017.4.17.]
3.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524호, 2016.11.10., 일부개정, 시행 2016.11.10.]

**<서천 한산모시짜기 : 2011년 인류무형유산 등재관련>**

1. 서천군 한산모시관 관리 운영 조례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414호, 2016.9.28., 일부개정, 시행 2016.9.28.]
2. 서천군 한산모시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1934호, 2008.3.5., 제정, 시행 2008.3.5.]
3. 서천군 한산모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399호, 2016.7.14., 일부개정, 시행 2016.7.14.]

# 기지사줄다리기 마케팅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 관광마케팅과장  
설 기 호

## I. 지속가능 관광콘텐츠 발굴과 시민공감의 장으로 활용

### 1. 연중 운영(상설) 가능한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 기지사 줄다리기는 재현기간 약 4일간 이외에는 연중 관광객 방문이 많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 관광콘텐츠로서 역할 미흡
    - 전수관(박물관) 활성화 : 면적 및 전시자료 확충, 3D 영상관 운영
    - 본 행사장에 대형 줄 상설전시, 볼거리 및 체험기회 제공
    - 짚풀공예, 줄꼬기, 그네뛰기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 발굴, 상설화
- ※ 청소년과 젊은 세대의 관심을 유발하는 콘텐츠 발굴이 중요

### 2. 줄다리기 개최(종료일)일 조정

- 줄다리기 행사 종료를 금요일 또는 토요일로 변경(2017년의 경우 일요일)
  - 일요일 저녁에 행사가 종료됨으로서 수도권 관광객은 교통체증 때문에 행사종료 이전에 행사장을 떠나감에 따라 체류형 관광유치 미흡

### 3. 전문해설가 육성·배치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활용

- 문화관광해설사 중 기지사줄다리기 전수관 상주 전담 해설사 배치, 전문성 확보 및 관광객 만족도 향상
  - ※ 백제문화단지는 전담(상주) 해설사 3명 운영 중
- 줄다리기 유래와 위상, 스토리를 가미한 웹툰을 제작, 관내 학교에 교양교재로 배포하고, 학교와 협의 현장학습의 장소로 운영

#### 4. 지역주민 활용확대 및 자율적 수용태세 정비

- 무료 전통혼례 지원, 농악놀이, 동아리 활동 등 주민활용과 전통 문화 시설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수관 시설 상시개방
- 주민 자율적으로 수용태세(친절, 청결, 적정요금 등)를 정비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재방문 유도(필요시 협의회 구성·운영)

## II. 새로운 마케팅 전략 필요

### 1. 지역에 기반을 둔 연계 관광마케팅

- 기지시줄다리기 행사장(전수관)에서만 구입가능하고 인근에 가야 먹을 수 있는 기념품과 특화음식 개발
  - 기지시 줄다리기 캐릭터 ‘줄동이와 말동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상품 제작
    - 캐릭터 관광상품은 생활속에 필요한 티셔츠, 가방, 열쇠고리, 인형 등 여러 가지 기념품과 생활용품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
- 기지시 줄다리기 콘텐츠 및 상설프로그램과 왜목마을, 솔피성지 등 주요 관광지는 물론 테마관광지, 체험관광, 계절음식(실치 등), 해나루 등 당진 특산품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여행사와 공동으로 판매
  - 최근,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농어촌 마을 체험과 연계하는 관광 프로그램은 좋은 반응을 받고 있음

### 2. 홍보매체의 다양화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는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매체중 하나.
  - SNS상에서 멋진 사진이나 영상, 글 등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홍보 효과도 우수, SNS에서 이벤트 개최시 사람들의 이목 집중.

- 기지시줄다리기를 소재로 하는 영상콘텐츠도 검토 필요
  - 언론사와 협조, 기지시줄다리기와 관련한 특집프로그램 제작방송(TV) 및 기획기사 정기게재(신문) 등 인지도 제고 노력 필요
  - 그 밖에 SNS에 익숙하지 않은 청장년층을 겨냥한 수도권 전광판 및 주요 시설광고도 지속적 추진 필요.
- ⇒ 충청도에서는 기지시줄다리가 충남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선양되도록 관광상품 개발지원, 인쇄물과 인터넷 홍보는 물론,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 언론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코스지정 운영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기지시줄다리기 활성화 방안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

김 경 태

## 1. 문화관광자원의 개념

### 1) 문화관광자원이란?

문화관광자원이란 문화관광을 행하는데 있어서 기본 매력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문화관광은 관광용어사전(안종윤, 1985)에 의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문화관광은 유적, 유물, 전통공예, 예술 등이 보존되거나 스며있는 지역 또는 사람의 풍요로웠던 과거에 초점을 두고 관광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적 동기를 가지고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특정 관심 분야 관광(SIT)의 일종”이라고 문화관광을 정의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WTO)에서는 문화관광을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로 구분하고 있는데, “협의의 정의는 공연예술을 비롯한 각종 예술감상관광, 축제 및 기타 문화행사 참가, 명소 및 기념물 방문, 자연·민속·예술·언어 등의 학습여행, 순례여행 등에서 어떠한 형태이건 문화적 동기에 의한 관광객들의 이동을 문화관광으로 보고 있으며, 광의의 정의는 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 만남을 증가시키는 등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타국이나 타 지역의 생활양식이나 전통적 행동양식에 접하고 체험하는 모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Rojeck & Urry(1997)은 이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자원의 개념에 대하여 박성수(1999: 221)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국민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고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매력을 지닌 자원”으로 해석

하고 있고, 이광원(1998: ) 역시 “민족문화유산으로서 문화의 가치(보존성,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가 있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닌 자원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의 문화재 분류와 정의를 기초로 하여 지정 여부 보다는 관광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인 매력물을 문화 관광자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문화재란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한다(문화재보호법 제1장 2조).

문화재의 관광적 가치는 관광자원을 생성형태, 가시적, 행동패턴 등의 바탕으로 자연 관광자원, 문화 관광자원, 사회 관광자원, 산업 관광자원, 위락 관광자원 등 5가지로 분류 하고 있다. 특히 유·무형 문화재와 민속 상품이 오늘날 가장 차원 높은 관광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문화재는 한 민족과 한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상실하지 않고 보존 및 계승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개발되고, 귀중한 민족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적 관광자원의 개발은 지역문화의 창달과 더불어 지역민에게 향토애를 심어주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 정책에 따른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신장 시켜주고 나아가 지구촌에서 주목 받는 관광 대상국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 2)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개념

지방화·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기초단체는 어느 때보다도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도입하였다. 따라서 지역경제 주체는 국내의 타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지역과 상호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며, 신기술, 신소재 등 첨단산업이 출현하여 탈공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로 들어선 세계경제구조의 재편이 시작되었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조직의 분권화와 경제적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다.

과거에는 지방의 발전이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및 지역정책에 크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지방의 독자적인 산업진흥정책이나 지역발전 전략이 커다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에 지역의 문화자원 발굴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업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문화도시 경쟁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가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의 지역배분과 국토균형발전에 입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성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부문별 및 업종별 육성정책에 부응하는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급속한 산업발전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산업발전의 침체와 이로 인한 지역발전의 낙후성을 경험해야 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 개발과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경영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경쟁력은 주로 지역경제의 발전 정도에 따라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은 그 지역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 고유의 경제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발전 대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2. 지역축제의 효과**

지역축제가 의도하는 효과는 크게 지역경제효과, 사회적 효과, 문화적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지역경제효과**

축제는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은 입장료 등 축제에 대한 직접적 지출과 숙박비, 교통비, 관광상품 및 특산품 등을 통한 간접적 지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그리고 축제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한 각종 투자는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광객의 지출과 이벤트를 위한 투자는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효과와 지역 및 지역간 산업 연관 효과를 일으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 2) 사회적 효과

지역축제는 먼저 지역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소속감 내지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케 한다. 즉, 지역축제는 지역주민들을 하나의 공동체적 삶의 공간으로 묶음으로써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축제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유대가 강화되며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다. 이러한 응집력은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의 동기가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축제는 지역의 이미지 제공기능을 한다. 지역의 생활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지역의 개성을 창출하는 훌륭한 미디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이미지 부각효과는 지역 내.외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 각종 축제 및 이벤트의 개최는 해외를 포함한 지역 외부로부터 사람과 물자 그리고 정보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 3) 문화적 효과

지역축제는 지역문화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킨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주민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지역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축제는 지역문화예술인의 지역간, 국가간 상호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여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문화교류의 활성화는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계기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축제는 문화보전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지역축제에서도 전통문화적 요소들이 재연되고 전승됨으로써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 3. 기지시줄다리기 활성화 방안

2017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가 4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기지시 줄다리기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됐다. ‘의여차! 줄로 하나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두 번째다. 민속축제로서 위상을 드높이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하게 마련됐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으로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하였다.

지역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가 지역을 대표하고 나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지시줄다리기의 의미 부여를 통한 브랜드화이다. 기지시줄다리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참여자들이 기지시줄다리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한다.

축제의 품격(品格)을 높이는 것으로 줄다리기에 참여자 스스로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축제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지시줄다리기가 가지고 있는 전설과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 텔링 작업을 통한 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 참여 방안 마련이다.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를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 관광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기지시 줄다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줄다리기 경기에 외국인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과 안내 및 설명을 위한 시스템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의 여행 상품화 방안 마련이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연계되는 것으로 여행사들이 외국인 관광객 모집을 위해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축제 개최 최소 6개월 전에 축제 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개최 전 팸투어 개최를 통해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를 실질적으로 여행상품화 하는 여행사와 외국인 블로거들에게 관심을 유발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넷째,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전문 축제기획자 육성이다. 지속적인 축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의 육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서 지역민을 축제 전문가로 육성하는 방안 마련을 통해 축제 기획에서부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1. 도기룡. 2005. “마케팅을 통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여수대학교 산업대학원.
2. 류정아. 2012. 『한국 축제와 지역문화 콘텐츠』, 커뮤니케이션북스.
3. 박준모. 2014. 「스토리텔링의 어촌관광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 23-50.
4. 오일환·신용철. 2014. 「독일 역사경관의 문화유산 관광자원 콘텐츠에 관한 연구」. 『한국 사진지리학회지』, 제24권 제3호, 한국사진지리학회, pp. 17-28.
5. 윤유식·오정학·김경태. 2010. 「백제역사재현단지의 관광이미지와 기대가치의 구조관계 분석을 통한 브랜드 전략 연구」. 『관광연구』, 제25권제1호, 대한관광경영학회, pp. 303-326.
6. 전약표·임선희. 201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유산관광 활성화 방안-프랑스 앙부와즈 고성 야간 스펙터클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제26권제5호, 대한관광경영학회, pp. 455-471.

# 기지사줄다리기 관광자원화 방안

당진시 문화관광과장  
박 종 희

당진과 충남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인 기지사줄다리기는 지역공동체의 풍요와 화합을 기원하는 의례이자 놀이로서 오랜 과거부터 지역축제로서 계속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기지사줄다리기 민속 축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에도 기지사마을은 호남과 충청지방에서 서울경기로 가는 주요 길목으로 큰 시장이 발달했다. 한 달에 열두번 장이 서고, 지명으로 시장을 뜻하는 ‘市’가 들어갈 정도로 시장은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시장의 흥행과 활성화를 위해 시장 상인들은 기꺼이 줄다리기를 위해 지원하였고, ‘기지사 줄난장’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졌다.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기지시에 사는 친지들 집에 며칠씩 머물면서 축제를 즐겼다는 이야기 등을 통해 기지사 줄다리기와 관광은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로서, 기지사줄다리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다.

기지사줄다리기는 시장 상인들의 지원으로 오랜 세월 운영되었다. 70년대 충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여 특히 80년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2000년대 민속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본격적인 축제로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기지사줄다리기 민속축제는 줄다리기라는 익숙하지만 독특한 소재이면서 마지막 날 기지사줄다리기라는 킬링콘텐츠를 통해 축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의 축제 형태를 갖추기 전, 오랜 역사를 가진 공동체 의례이자 축제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 이러한 기지사줄다리기의 발전방안에 대한 몇 차례 논의 및 심포지엄, 토론회 등이 개최된 바 있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경우 유네스코 등재 2주년을 맞이하여 기지사줄다리기

의 세계화와 마케팅 방안에 대한 논의로 시의적절하고, 내년 행사를 준비하는 측면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점이 많은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시에서 관광축제로서, 무형유산으로서 기지시줄다리기 지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 몇 가지 검토해본 사항에 대해 이 자리에서 논의코자 한다.

우선 무형문화유산 기지시줄다리기와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는 구별해서 접근하고, 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지시줄다리기는 무형문화유산이자 축제로서 다중적인 이미지로 활용되고 있다. 비록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와 축제위원회로 조직은 구분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 이는 기지시줄다리기 자체의 축제성이 강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기지시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이기에 문화재의 범주에서 보존과 전승의 활성화 측면으로,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는 ‘무형문화유산 기지시줄다리기 ‘를 소재로 한 민속축제이자 관광콘텐츠로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축제로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기지시줄다리기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각 분야를 보는 관점과 발전방향은 다르게 적용하여야 한다.

가령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기지시줄다리기는 전승과 교육, 전형의 유지와 활용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는 관광에서 접근하여 국내외 유수의 축제를 비교 분석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강릉단오제 역시 제사, 무속, 관노가면극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 분야와 단오장터와 각종 부대행사, 공연행사를 추진하는 축제 분야가 분리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당진 제1의 축제로서의 위상과 규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축제와 문화재 분야를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재 양립하고 있는 축제위와 보존회 각각 역량강화, 역할분담, 적절한 전담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기지시줄다리기 민속 축제에서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기지시줄다리를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축제기간 기지시줄다리기 체험부스, 교육, 줄제작 등 보존회 주관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축제라는 기지시줄다리를 집중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소에도 상시 행사인 생생문화재 등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축제의 경우 관광축제로서 보다 성숙한 운영이 필요하다. 당진시 최대의 축제로 성장한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는 더 이상 송악읍과 기지시리만의 축제가 아닌, 당진 전체와 충청남도, 전국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한다.

우선 축제 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해야 할 것이며, 지역의 문화제에서 탈바꿈해서 세계적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축제를 준비하는 주체들의 역량강화와 함께 나아가서는 축제전문감독제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대외행사 참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줄다리를 알리는게 중요하며, 선진적 경영기법, 마케팅, 행사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기지시줄다리를 관광객에게 보다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지시줄다리를 시의 대표적 문화콘텐츠 브랜드로 육성, 지역 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농협과 연계한 줄다리기 상품 개발 및 시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의 줄다리기 시연, 주요 관광지와 지역축제에서의 기지시줄다리기 홍보 등을 들 수 있겠다.

나아가 현재 충남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축제는 공주, 부여에서 개최되는 백제문화제와 금산의 세계인삼엑스포 등을 들 수 있는데,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역시 이러한 축제로 격상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2년 내포지역의 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충청남도에서 연구를 추진한 결과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콘텐츠 1위가 바로 기지시줄다리기

였다. 대부분의 전문가 역시 기지시줄다리기의 높은 집중성과 줄다리기라는 소재의 친근함, 참가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높은 참여도에 동의하고 있다. 유네스코 등재 종목으로서 한 번 더 성장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에서 직접 지원 축제로 격상, 육성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와 도가 함께 기지시줄다리기가 우수한 무형유산 축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과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지시줄다리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과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무형유산이다. 유네스코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관광자원화는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오랜 세월동안 지역의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큰 축제로 기능해오고 있다. 지역사회와 보존단체, 축제위원회, 당진시, 충남도에서 힘을 모아 기지시줄다리기가 세계 속의 축제로, 지역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도약할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